

화순군 음식연구회 회원, '대한민국 한식대가' 선정

화순향토음식연구회 임영숙 회원, 전통음식 분야

28년간 외식업 종사하며 닭장떡국 전통의 맛 연구

화순향토음식연구회 회원 임영숙 씨가 대한민국 한식대가에 선정됐다. 2019년 김영란(화순향토음식연구회)·송정희(발효연구회), 2020년 정효화(발효연구회), 2021년 박영심(화순향토음식연구회) 씨, 2022년 임영숙 씨 등 화순에서는 다섯 명의 대한민국 한식대가를 배출했다. 화순군에 따르면, 임영숙 씨는 지난 7일 대한민국 한식포럼이 주관한 '2022년도 대한민국 한식대가에 선정됐다. 임영숙 씨는 28년 동안 외식

업에 종사하면서 닭장떡국 전통의 맛을 연구하며 쌀소비 촉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임영숙 씨는 "전통의 닭장떡국 맛을 알리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그 노력을 인정받아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향토음식 연구와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순군의 지원으로 활동하는 연구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한민국 한식대가를 배출해 회원들의 자긍심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1회원, 1전통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대상중공업(주)'·'(주)기인트' 혁신산단 투자협약

제1호 투자협약...사용 후 배터리 제조 공장·기계 스마트 장비 제조공장 각각 건립

나주시가 민선 8기 출범 후 윤병태 시장이 제1호 문서로 결재했던 2개 벤처기업 투자유치 협약을 성사시키며 에너지신산업 선도 미래 첨단 과학도시 기반 조성에 힘찬 뜻을 올렸다. 나주시는 11일 시 청사 이화실에서 '대상중공업(주)', '(주)기인트'와 혁신산단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중공업(주)은 전남 영암에 본사를 둔 선박 구성품 제조업체로 최근 사업 다각화를 목표로 이차전지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혁신산단 부지 7306㎡에 80억원을 투자해 내년 상반기까지 'EV·ESS 사용 후 배터리 제조 공장'을 건립, 고용인력 40명을 창출하고 향후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조성에 맞춰 사업 영역과 부지를 확장할 방침이다. 나주=송준표 기자

경기 수원에 본사를 둔 (주)기인트는 농작업의 효율성을 더해줄 농기계용 자율주행기어 개발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밀 농업 벤처기업으로 국내외적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주)기인트는 올 연말까지 혁신산단 8192㎡에 58억원을 투자하고 기계 스마트 장비 제조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4차산업 혁명 기술을 농업분야에 적용한 제품 개발·상용화 및 서비스를 구축하고 인력 37명을 고용한다는 목표다. 윤병태 시장은 "에너지신산업 메카 나주를 선도할 민선 8기 제1호 투자협약 주인공이 된 대상중공업(주), (주)기인트에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첫 투자협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기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 기자

곡성군 디지털 체험존, 할머니도 VR 삼매경

스마트폰·키오스크·AR/VR·AI 스피커 마음껏 체험 가능

곡성군민이 오는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곡성을, 삼기면, 고달면을 제외한 8개 면을 순회하며 디지털 체험존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체험존에서는 군민 누구나 최신 정보화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다. 평소 스마트폰의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했다면 체험존에서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 식당이나 각종 상점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키오스크에 대한 이용 방법도 배워볼 수 있다. AR/VR 기기도 갖춰져 있어 가상 공간을 체험할 수도 있고, 가정용 AI 스피커를 통해 각종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1대 1로 안내받을 수 있다. 디지털 정보화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실생활에 유용한 디지털 기기 체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날짜	시간	장소	대상
7. 18. (일)	7. 20. (화)	7. 21. (수)	7. 22. (목)
곡성읍	곡성읍	곡성읍	곡성읍
삼기면	삼기면	삼기면	삼기면
7. 25. (일)	7. 26. (월)	7. 27. (화)	7. 28. (수)
곡성읍	곡성읍	곡성읍	곡성읍
삼기면	삼기면	삼기면	삼기면

그동안 곡성군에서는 곡성을 레저문화센터와 기차마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디지털 체험존을 운영해 왔다. 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체험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읍면의 주민들도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면사무소로 찾아가는 디지털 체험존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곡성군은 2022년 6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7.69%인 초고령 지역이다. 특히 면 지역은 젊은 연령층이 더욱 부족해 디지털 정보화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없다. 평소 스마트폰의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했다면 체험존에서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 식당이나 각종 상점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키오스크에 대한 이용 방법도 배워볼 수 있다. AR/VR 기기도 갖춰져 있어 가상 공간을 체험할 수도 있고, 가정용 AI 스피커를 통해 각종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1대 1로 안내받을 수 있다. 디지털 정보화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실생활에 유용한 디지털 기기 체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곡성=양혜영 기자

김한중 장성군수, 현장점검 '광폭 행보'

세계유산 필암서원·축령산 하늘숲길·장성호 수변백리길 등 직접 찾아

김한중 장성군수가 장성지역 내 주요 사업지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장성군에 따르면, 김한중 군수는 먼저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을 찾아 관리상황과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했다. 군은 지난해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선정돼 군비 포함 3년간 100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필암서원을 중심으로 장성의 선비문화를 널리 알리고, 세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한중 군수는 이어서 축령산 추암호 수변 생태탐방로와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진행 추이를 점검했다. 삼계면을 방문한 김한중 군수는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가 구축되고 있는 상도리 일대와 수경시설이 조성되고 있는 상무평화공원을 살펴봤다. 남편, 진원면 일대로 발걸음을 옮겨 20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덕성행복마을' 사업 현장과 불태산 역사문화테마길 조성사업 실태를 확인했다.



군민힐링 성산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장성읍 수산리 일원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한중 군수는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은 궁극적으로 '장성군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며 "사업 진행에 내실을 기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